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NS홈쇼핑도 새벽배송 가세...홈쇼핑, 배송전쟁 불붙었다 (아시아투데이 2019.2.10)

10일 NS홈쇼핑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남3구(송파·서초·강남)를 비롯해 강동구와 성남·판교를 중심으로 새벽배송·당일배송·정기배송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함. 이를 위해 동남권에 물류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어 전북 익산에 올해 말 완공되는 4000억 규모의 익산 하림푸드콤플렉스에서 생산되는 가정간편식(HMR)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밝힘. NS홈쇼핑은 뿐만 아니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4500억원 상당의 화물터미널 부지를 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2016년 매입, 상온 신선식품을 3시간 내에 수도권에 급속 보급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구축 중이라 밝힘. R&D-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는 사업구조 완성으로 종합식품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 같은 업계의 현대홈쇼핑도 지난해 8월부터 오후 3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6~7시에 배송하는 냉동식품 위주의 '싱싱냉동마트'를 현대H몰에서 운영하고 있음. GS홈쇼핑도 GS프레시에서 최근 실시 중인 당일 배송 시스템을 새벽배송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롯데홈쇼핑은 현재 강남3구에서 TV신선식품 상품을 중심으로 새벽배송 시범운영을 하고 있음.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벽배송을 실시한다는 계획. 이처럼 홈쇼핑 업계에서도 새벽배송에 가세하며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2015년 100억원에서 2018년 4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불경기 모르는 렌탈업계, 최대 실적 '행진'...왜? (에너지경제 2019.2.9)

9일 금융투자 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관련 업계 부동산의 1위 코웨이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5080억 원, 2조 675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함. 현재 코웨이가 보유한 국내외 렌탈 계정 수는 688만 개(이하 누적, 지난해 3분기 기준)로 업계 최대. 국내 렌탈 계정만 585만여 개로 대한민국 인구의 11.3%가 이용, 지난해 3분기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함. 렌탈 계정 185만 5000개로 업계 2위를 수성하고 있는 쿠팡홈시스도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172억 원에서 205억 원, 934억 원에서 1098억 원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SK네트웍스의 자회사 SK매직(업계 3위, 렌탈 계정 145만 개)도 '실적 신기원'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지난해 31일 실적 공시를 통해 SK매직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별도 기준 각각 471억 원, 64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 22.8% 확대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 특히 렌탈 부문 매출액이 3599억 원으로 같은 기간 36.8% 급증함. 이러한 국내 생활가전 렌탈업계의 나 홀로 성장 배경에는 그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구매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추세가 확산되면서 렌탈을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꼽힘. 여기에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장점과 동남아시아를 필두로 한 해외 시장 공략, 미세먼지 여파에 따른 공기청정기 판매 확대가 불황 속 '역주행' 요인으로 지목됨.

춘절에도 韓 화장품株 '울상'...고급화 전략 日 화장품株는 '방긋' (이데일리 2019.2.8)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이 다가오면서 한국 화장품업체와 일본 화장품업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중저가 라인을 내세우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주가는 신통찮은 반면, 고가 라인업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는 일본 화장품 업체는 중국향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조치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한국 대신 일본을 찾은 것도 한국 화장품주가 부진한 이유로 꼽히고 있음.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090430)은 전날 대비 2.74% 떨어진 17만 7500원에 장을 마쳤으며, 잇츠한불(226320)과 토니모리(214420) 역시 각각 3.96%, 2.72% 하락함. 이는 중국의 춘절 특수효과가 기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으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방문 상위 국가는 △1위 일본 △2위 태국 △3위 홍콩 △4위 싱가포르 △5위 베트남 순으로 올해 춘절 해외여행을 떠난 중국인은 전년 대비 7.7% 늘어난 700만명에 달하지만, 한국은 중국인들이 찾은 해외여행지 상위 10위 안에도 들지 못함. 이에 더해 중저가 중심인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도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중국의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 중저가 업체들의 상대적 매력도 경감되기 때문. 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법인 매출에서 이니스프리와 라네즈 등 중저가 제품의 매출 비중이 60~70%에 육박함. 여기에 일본 화장품 회사들이 브랜드의 럭셔리화를 꾀했던 것도 결정적이라는 분석. 니혼게이샤이신문에 따르면 시세이도는 방일 외국인 수요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출이 실적 성장을 견인한 덕에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한국 H&B시장 포화? 세포라도 노릴 만큼 매력적” (중앙일보 2019.2.8)

롭스는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 올리브영과 랄라블라의 뒤를 잇는 업계 3위. H&B 시장을 두고 일각에선 성장세가 둔화하며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운데 롱스의 선우영 대표는 “양적으로 경쟁하기보다 질적으로 승부하겠다”는 제3의 답을 내놓음. H&B 시장이 성장세가 둔화하며 이미 포화라는 의견이 있지만 세포라(세계 최대 화장품 편집숍)같은 거물급이 국내에 뛰어들고 싶어한다는 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방증이라는 것이 선 대표의 설명. 일본의 선형을 유심히 봐도 지난해 일본에서는 H&B와 비슷한 드럭스토어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은 인구 대비로 따지면 H&B에 기회가 많다는 의미라고 밝힘. 또 그는 유통 전반에서 화두인 O4O(Online for Offline)와 관련하여 O4O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흐리는 자체가 아니라 고객이 편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롱스 매장에서는 직원을 찾지 않아도 손님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품 바코드를 찍으면 상품평이 나오고 또 대중교통으로 매장을 찾는 1020이 많아 인터넷 사이트에 매장 위치를 어디를 끼고 어느 건물 옆이다라는 식으로 자세히 설명한다고 덧붙임.

“7년 연속 매출 감소” 위기의 대형마트...해법 찾기 고심 (브릿지경제 2019.2.6)

국내 대형마트의 매출이 7년째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함. 온라인·전문점의 성장으로 인한 시장 잠식 현상으로 식품군과 가전부문을 제외한 전 상품 군에서 매출이 감소한 탓으로 분석. 이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 2012년 전년 대비 3.3% 감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7년째 매년 2% 내외의 역성장을 지속함. 신기술 도입과 배송 편리성 등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성장 둔화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 이에 대형마트 관련 업체들은 해법 마련에 고심, 출점을 늘리는 대신 부실 점포를 새로운 형태의 매장으로 리뉴얼하거나 집객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국민가격’이란 저가 전략 카드를 꺼내 들어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할인을 주력으로 내세움. 유통 구조상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에 비해 취약한 가격 경쟁력 유통마진 최소화를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이와 함께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성장 동력으로 삼을 방침. 트레이더스의 지난해 매출은 1조 9,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함. 롯데마트는 올해 본격적으로 옴니채널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홈플러스는 상품 차별화에 힘을 쏟을 예정. 오직 홈플러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을 선보여 매출을 늘리겠다는 전략.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객단가와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통해 객단가를 늘리는 한편 마트 내부에 체험형 매장 등 고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코멘트(2/11-2/15)

유통, 화장품: 중국인 인바운드 입국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국내 면세점 업계는 알선수수료 경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면세점, 화장품 업종도 1분기 영업 환경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 중. 금주는 유통업 및 화장품 ODM/OEM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177.05	-1.20%	롯데쇼핑	0.26	-0.26	-5.58	GS리테일	-0.42	-3.13	-0.70
KOSDAQ	728.74	1.65%	현대백화점	-3.87	-1.92	3.61	코웨이	-0.12	2.86	9.69
유통업	402.68	-1.24%	신세계	-5.51	-6.03	6.64	아모레퍼시픽	-6.85	-6.08	-7.86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1.39	-8.03	-8.27	LG생활건강	-2.71	1.41	11.82
KRW/USD	1,123.40	1.06	롯데하이마트	0.20	3.64	8.11	코스맥스	-0.39	4.05	3.21
KRW/JPY	1,023.09	0.17	호텔신라	-4.04	-9.12	5.74	한국콜마	-2.96	-1.95	-3.82
KRW/CNY	165.75	0.12	현대홈쇼핑	-1.92	-1.45	2.00	토니모리	-6.23	-9.06	-0.82
			엔에스쇼핑	-0.37	0.75	1.50	SK네트웍스	0.65	4.88	7.41
			GS홈쇼핑	-1.01	-0.70	-0.64	클리오	-5.06	-7.92	7.96
			BGF리테일	1.37	-1.33	-2.37	코스메카코리아	-4.27	-1.82	-1.82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5.5	11.2	14.1	노드스트롬	0.3	-3.4	-3.9	텐센트	-0.7	0.5	5.0
로레알	3.3	9.1	10.4	맥스&스펜서	-2.0	-1.7	3.8	알리바바	-0.4	5.1	10.3
에이본프로덕츠	0.0	26.3	37.4	다카시마야	-3.1	-2.5	-3.5	JD닷컴	-2.6	1.5	2.5
상해자화	0.0	4.6	7.2	이온 물	0.9	2.7	5.7	VIP샵	-3.3	-3.0	24.6
크리스찬디올	-1.3	3.7	6.1	세븐&홀딩스	0.1	0.2	-3.5	스타트투데이	-20.1	-21.7	-23.5
P&G	0.2	4.4	7.2	아마존	-2.3	-4.9	-4.1	이베이	2.8	4.6	-76.8
고세	0.4	8.0	8.5	월마트	1.8	-1.4	0.7	메르카도리브레	-4.6	1.4	2.4
에스티로더	13.2	20.8	23.5	테스코	1.0	-0.3	3.6	라쿠텐	-1.0	-7.1	-1.9
LVMH	-0.4	8.6	9.4	타겟	-0.4	-2.1	3.8				
ULTA	1.6	1.8	6.9	까르푸	0.6	0.2	10.6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현지통화)	7,017.00	218.80	2.50	29.05	370.30	97.71	16,540.00	154.71	283.55	296.06
시가총액(백만USD)	25,581	138,928	1,106	2,891	75,732	244,429	9,134	55,875	162,267	17,560
매출액 (백만USD)	2017 8,964 2018 10,038 2019 10,798 2020 11,561	2017 29,400 2018 30,532 2019 32,275 2020 33,981	2017 5,716 2018 5,488 2019 5,220 2020 5,279	2017 953 2018 1,055 2019 1,239 2020 1,480	2017 49,330 2018 53,242 2019 56,905 2020 60,729	2017 66,832 2018 67,134 2019 69,296 2020 71,578	2017 2,738 2018 3,042 2019 3,235 2020 3,473	2017 13,683 2018 14,540 2019 15,504 2020 16,490	2017 48,167 2018 53,524 2019 57,472 2020 61,110	2017 5,885 2018 6,698 2019 7,491 2020 8,278
영업이익 (백만USD)	2017 717 2018 1,101 2019 1,307 2020 1,521	2017 5,079 2018 5,600 2019 6,015 2020 6,402	2017 273 2018 262 2019 258 2020 310	2017 54 2018 92 2019 121 2020 157	2017 9,263 2018 N/A 2019 N/A 2020 N/A	2017 13,711 2018 14,422 2019 15,358 2020 16,207	2017 437 2018 529 2019 574 2020 634	2017 2,052 2018 2,469 2019 2,725 2020 2,975	2017 9,169 2018 11,390 2019 12,355 2020 13,385	2017 785 2018 852 2019 981 2020 1,118
순이익 (백만USD)	2017 203 2018 689 2019 843 2020 1,013	2017 4,046 2018 4,567 2019 4,885 2020 5,194	2017 22 2018 40 2019 65 2020 116	2017 58 2018 75 2019 96 2020 122	2017 2,531 2018 3,125 2019 3,445 2020 3,772	2017 9,750 2018 11,662 2019 12,255 2020 12,947	2017 276 2018 347 2019 369 2020 406	2017 1,108 2018 1,850 2019 2,032 2020 2,219	2017 6,061 2018 7,335 2019 8,082 2020 8,791	2017 555 2018 656 2019 748 2020 847
PER (배)	2017 95.6 2018 37.4 2019 30.6 2020 25.5	2017 27.1 2018 30.8 2019 28.6 2020 26.8	2017 37.1 2018 53.2 2019 20.0 2020 11.2	2017 63.6 2018 36.9 2019 29.8 2020 23.5	2017 24.4 2018 24.3 2019 22.1 2020 20.2	2017 19.0 2018 21.9 2019 20.5 2020 19.2	2017 41.5 2018 24.7 2019 23.4 2020 21.2	2017 31.6 2018 30.8 2019 27.7 2020 25.2	2017 23.0 2018 22.3 2019 20.3 2020 18.7	2017 26.1 2018 27.2 2019 23.3 2020 19.9
ROE (%)	2017 5.6 2018 17.3 2019 18.9 2020 19.3	2017 14.5 2018 15.6 2019 15.3 2020 15.3	2017 N/A 2018 N/A 2019 N/A 2020 N/A	2017 7.3 2018 8.9 2019 10.5 2020 12.0	2017 18.2 2018 20.2 2019 19.9 2020 19.5	2017 18.3 2018 21.4 2019 22.2 2020 23.1	2017 17.6 2018 19.4 2019 18.4 2020 17.7	2017 24.4 2018 39.9 2019 46.2 2020 50.4	2017 19.4 2018 20.6 2019 20.2 2020 19.4	2017 33.4 2018 35.5 2019 38.6 2020 42.1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 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 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45,47	285,00	1,418,00	1,842,00	4,754,00	1,588,22	95,58	224,20	70,88
시가총액(백만USD)		7,608	5,988	2,297	3,819	38,408	780,138	277,685	28,390	36,988
매출액	2017	15,478	14,194	7,960	2,587	43,162	177,866	500,343	75,382	71,879
(백만USD)	2018	15,981	13,469	8,349	2,886	60,815	232,419	514,070	83,267	75,293
	2019	16,420	13,402	8,504	3,052	62,947	275,742	528,547	84,968	77,580
	2020	16,847	13,451	8,581	3,165	64,842	326,200	544,950	86,769	79,816
영업이익	2017	926	208	317	442	3,516	4,106	20,437	2,409	4,312
(백만USD)	2018	926	772	274	483	3,807	12,290	21,983	2,679	4,131
	2019	955	758	306	530	4,091	17,681	21,682	3,143	4,213
	2020	982	760	323	549	4,342	25,570	22,617	3,440	4,215
순이익	2017	437	34	212	274	1,626	3,033	9,862	1,581	2,934
(백만USD)	2018	605	525	179	293	1,885	14,252	13,714	1,729	2,885
	2019	619	521	202	323	2,240	18,294	13,681	2,133	2,909
	2020	635	527	214	342	2,419	30,963	13,896	2,480	2,896
PER	2017	16.9	168.9	16.1	16.7	21.8	256.6	24.1	16.9	15.5
(배)	2018	12.8	11.4	13.0	13.0	20.4	55.2	19.8	15.9	13.0
	2019	12.4	11.6	11.6	11.9	17.1	43.6	20.1	13.3	12.6
	2020	11.9	11.4	10.9	11.3	15.9	32.0	19.1	11.7	12.2
ROE	2017	47.3	0.8	5.6	8.4	7.6	12.9	12.7	14.3	26.0
(%)	2018	54.4	14.0	4.4	8.6	8.2	27.3	14.1	10.6	24.2
	2019	49.5	14.1	4.8	8.6	9.3	26.1	18.0	11.4	24.2
	2020	68.4	14.5	4.9	8.5	9.6	29.0	18.1	12.1	24.2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스타트 투데이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7,49	345.60	167.36	23.99	7.39	1,670.00	35.26	347.82	794.00
시가총액(백만USD)		15,635	419,259	433,828	34,708	4,899	4,743	32,259	15,722	10,381
매출액	2017	92,207	35,223	37,825	53,678	10,802	888	9,927	1,398	8,424
(백만USD)	2018	87,017	46,517	55,744	68,013	12,543	1,150	10,730	1,436	9,918
	2019	88,877	60,113	76,124	81,021	13,639	1,412	10,879	1,954	11,166
	2020	90,496	75,953	99,486	94,768	14,710	1,691	11,529	2,700	12,711
영업이익	2017	786	12,540	10,476	-124	399	295	2,264	56	1,342
(백만USD)	2018	2,011	15,001	8,707	-561	431	292	2,926	-78	1,416
	2019	2,361	17,011	13,040	-196	490	385	3,045	-11	937
	2020	2,643	21,561	17,889	460	652	481	3,253	91	863
순이익	2017	-600	10,594	9,687	-23	289	182	-1,017	14	986
(백만USD)	2018	852	11,420	12,680	348	394	202	2,287	-37	969
	2019	1,018	13,921	16,409	760	442	270	2,272	19	552
	2020	1,366	23,873	21,093	1,924	711	332	2,599	250	533
PER	2017	N/A	44.5	45.1	N/A	23.8	43.9	30.4	197.1	12.9
(배)	2018	18.1	35.1	32.1	96.8	12.4	23.5	15.3	N/A	10.1
	2019	14.7	29.6	25.6	46.9	11.2	17.5	13.2	704.1	18.1
	2020	13.5	23.8	19.7	26.9	9.7	14.4	11.6	163.3	21.8
ROE	2017	-5.2	33.2	19.9	-0.4	19.5	57.4	-10.9	3.7	16.2
(%)	2018	7.2	26.7	17.1	0.2	13.2	57.3	33.1	-12.9	13.4
	2019	7.8	24.3	17.0	0.7	11.8	75.4	52.2	0.6	7.3
	2020	9.1	24.5	17.9	7.4	14.0	61.3	59.8	14.3	5.5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